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태어나기 이전 자기 무시하니 苦 쌓여

다시 한자리를 하게 돼서 기쁩니다. 여러분과 항상 같이 있으면서도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란 찰나에 머물렀다가 찰나에 흩어지기도 하죠. 그러니 모습을 보고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고 내 주인공에 항상 찰나찰나로 들고 난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나뿐만 아니라 일체제불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은 이르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공부하는데 채찍이 될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가까이에 개나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을 많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 가까이로는 닭이나 소나 돼지 같은 짐승들도 많구요.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도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이 몇 안됩니다. 그런데 짐승들 중에도 숫자는 몇 안되지만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있습니다.

그 짐승들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인간이 돼야만 벗어날 생각도 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두 발로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람을 동경하고,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배우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되기를 바라고 자기 생명까지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몽둥이로 때려도 울면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것 뿐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보다 더 나은 짐승도 많이 있습니다. 주인의 은혜를 생각해서 자기의 생명과 몸을 다 바쳐서라도 주인의 목숨을 살리고 은혜를 갚는 그런 짐승들도 있습니다.

옛날 얘기 하나 할까요. 꼭 옛날이라고 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도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느 대가집에서 농사를 많이 짓는데 추수를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면 항상 싸래기 빻은 것은 쥐들 먹으라고 풀어놨답니다. 그 주인은 지혜가 풍부해서 싸래기를 마음대로 먹게 놔 두니 쥐들이 다른 것은 건드리지를 않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쥐들이 보니까 그 주인집 지붕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옛날에는 기와집을 지을 때 진흙을 갖다가 포갬포갬 놓고선 기와를 올렸더랍니다. 그런데 오래되니까 그게 몽땅 가라앉을

> "동물들도 모습 다르지만 마음공부
> 진화 되고 지혜로워지면
> 남 해치지 않고 독성 뿜지 않아요"

려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갚을 길이 없고 해서 쥐가족들이 의논을 했어요. 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인간이 되기 위해서 주인댁 사람들의 행동을 유심히 보고 많은 것을 배웠는데 꼭 은혜를 갚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 주인댁 식구가 다 자는 밤중에 쥐들이 다 마당에 나와서 막 찍찍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춤을 췄답니다. 워낙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소리를 내니 시끄러웠겠죠. 그래 이거 잠 못자겠네 하고는 주인이 나왔더랍니다. 나와서 보니 쥐들이 춤을 추고 있으니 신기할 밖에요. 그래서 식구들을 다 불렀어요. "얘들아, 이거 구경해라, 쥐들이 춤춘다." 하고선 다 불러내어 구경을 했더랍니다. 그러는 중에 지붕은 내려앉고 그때서야 쥐들은 춤을 멈추고 머리를 조아리더니 다 흩어지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사람을 거쳐야 부처 되는 까닭에, 아니 부처가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모든 걸 벗어버리기 위해서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도 갚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너그럽고 지혜로운 살림살이를 다 지켜보면서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식구들도 살리고 쥐들도 홀연히 다 벗어났답니다. 인간으로 말이예요. 인간을 거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에서 사는 거나, 허공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땅 속에서 사는 거나 다 공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오래오래 살다보면 그런 마음이 진화가 돼서 마음이 열리고 지혜로와지고 그래서 남을 해치지 않고 독성을 뿜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물에서 사는 거나 허공에서 사는 거나 들에서 사는 거나 땅 속에서 사는 거나 공부하는 그 마음들은 다 똑같습니다.

제가 상원사에 있을 때도 공부하는 뱀들이 있어서 배가 고플 때는 시식밥만 조금씩 얻어먹고 가지 절대 딴 것을 먹지 않고, 풀이나 이슬만 받아먹고 사는 뱀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리고 사람 앞에 와서 놀라게 한다는가 하지도 않았습니다. 먹을 만치 먹고는 슬그머니 사라지고 없죠. 비록 모습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지만 사람으로 살던 습이 남아서 그래도 공부할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이런 일도 있었더랍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무심코 그냥 보게 되지만 알고보면 참 그렇게 애처롭고 가슴저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부인이 애를 못낳았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개는 새끼를 뱄더랍니다. 그러니 그 부인이 개를 쳐다보면서 '너는 새끼를 뱄는데 나는 어째서 아기가 없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하느냐'고 눈물을 흘리니 그 개도 부인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항상 같이 눈물

그림 · 최주현

> "자기 몸속의 중생들 둘 아니게 조복해야"
> "가난 · 병 어떤 문제닥쳐도 재료삼아 공부"

을 흘렸더랍니다. 그러다가 그 개는 새끼를 낳고서는 금방 죽더랍니다. 새끼를 낳아 놓고 죽었으니 이걸 어찌하나, 왜 죽었을까 하면서도 당장 살려야겠기에 우유를 먹이면서 그 새끼들을 잘 길렀답니다.

그런 어느 날 어미개가 죽고 얼마 안돼서 바로 이 부인한테 태기가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은 개는 그 때는 개의 모습이었지만 자기를 보면서 울던 부인의 처지를 생각하니 차라리 자기가 죽어서 그집 아기가 되기로 결심했던 겁니다. 애절한 마음이 통한 거죠. 그래서 순간에 사람으로 바뀌었던 거죠. 그래서 태어난 아기는 누구보다도 효성스럽고 영리하고 착하고 또 의리있는 사람이 되니 그 이름이 밝게 빛이 나더랍니다. 그렇게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또 개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이나 소들도 자기를 키워 준 은혜를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산사태 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때 어느 마을에 산사태가 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니까 그 동네 소나 말들이 함께 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 있으니 소들이 집안에 들어가서 문을 흔들기도 하고 빙글빙글 돌고 온통 야단이거든요. 그나마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서 그 뜻을 알고 소를 따라 같이 뛰어나가는데 뒤에서 벽력같은 소리가 나서 돌아다보니 산중턱이 무너져서 논이고 집이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덮었더랍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저놈의 개새끼가 왜 짖느냐고, 듣기 싫다고 몽둥이로 때리고 돌팽이질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말을 못알아 들으니까요. 보이는 도둑만 알지 보이지 않는 데서 들어와서 사람을 해치는 것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 개는 몇 해를 그 집에서 살면서 인간의 도리를 다 배우고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자꾸 짖는데 사람이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오히려 '저놈의 개가 짖어서 잠도 못자게 한다'고선 몽둥이로 치거든요. 그래도 개는 안타까워서 뛰어들어 갔다가 나왔다가 맞고서도 또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니 결국 그 식구들한테 맞아 죽었더랍니다. 피를 토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스님이 지나다 그걸 보시고 "허, 이 집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개가 모습을 벗었구나. 허허 그것 참 기특하구나. 너는 다음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좋은 인연을 만나서 잘 배우고 사람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하시고는 마을을 떠나셨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주인댁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개를 얼른 거둬다가 묻어줬더랍니다.

눈물나는 일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기 위해서, 두 발로 걷기 위해서, 자기 생명과 자기 모습을 다 버리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몸안에 들은 의식들을 중생이라고 비유를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곤충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면서 진화가 돼서 사람은 됐으나 사람 속에 뭐가 들었나를 말입니다. 그렇게 지은 인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하고 입고 살아야 하고, 살아야 한다는 의식구조가 완벽해서 머리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죠. 그러니 부처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조복하라, 네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둘이 아니게 조복하라. 그래야만 그 모습 속에 있는 곤충들이 사람과 둘이 아니게 하나로 공해서 이 곤충 몸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인간의 이 모습이 바로 곤충의 집합소예요. 그런데 모습은 인간이고 부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지만, 또 마음도 그렇다 하지만 마음도 쓰기 나름이라 천차만별로 쓰기 때문에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곤충도 인간으로 진화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인간으로 화해서 하나가 돼야 그걸 조복을 받았다고 하고 죽어도 죽은 게 없고 살아도 산 게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찰나찰나 나투면서 화해서 어떠한 모습도 마다 안하고 어떠한 거든지 아니 하시는 게 없이 하시되 함이 없이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지금 인생이 이 모습을 버리기 전에 우리는 이 모습 속에 있는 곤충이 다 하나로 부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의식에서 나오는 어떠한 거라도 즉 말하자면 세균성이나 영계성,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이런 것이 다 몰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둘이 아니라 모두가 공심으로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것이 곤충으로 남아있으며 어떻게 죄로 남아있으며 인과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또 유전성으로 남아 있겠습니까?

이게 참 생각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무너졌다 그러면 그 사실만 가지고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그 무너짐과 병세보다 더 시급한 게 바로 이 공부입니다. 지금 시급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세요. 곤충에서 벗어나는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난하다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80)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로 인해 한 데로 떨어진다면.

"실천이 따르지 않는 공부, 행함이 없는 지식은 남의 목장에서 놀고 있는 젖소를 세어 보는 것과 같다. 백 번 보는 것이 한 번 행하는 것만 못하니 참 지혜란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 지식의 많고 적음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

학식이 많고 머리가 좋으면 바깥 세계만 보고 무엇인가를 자꾸 주워담는 경향이 있다. 이것도 궁금하고 저것도 궁금해서 알음알이 짓느라 바쁘다.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하여 따라다니느라 분주하다.

그러나 아무리 학식이 높고 아는 게 많다해도 먼저 백지를 볼 줄 모르면 그 학식을 올바로 쓰지도 못할 것이니 먼저 백지를 알고 난 뒤에 써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부처님 제자중에 '파티세나'라는 한 노장이 있었다. 그는 몇 번을 일러줘도 단 하나의 시구를 암송하지 못했다.

하루는 부처님께서 그를 불러 시구의 뜻을 자세히 일러주시며 '외우려 하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 하셨다.

마침내 파티세나는 아라한이 되어 부처님을 대신해 설법을 하게 되었다.

몇 천의 말보다 하나의 진리를 이해하고 행동에 옮기는 편이 낫다. 부처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다해도 그 지식이 자신을 구제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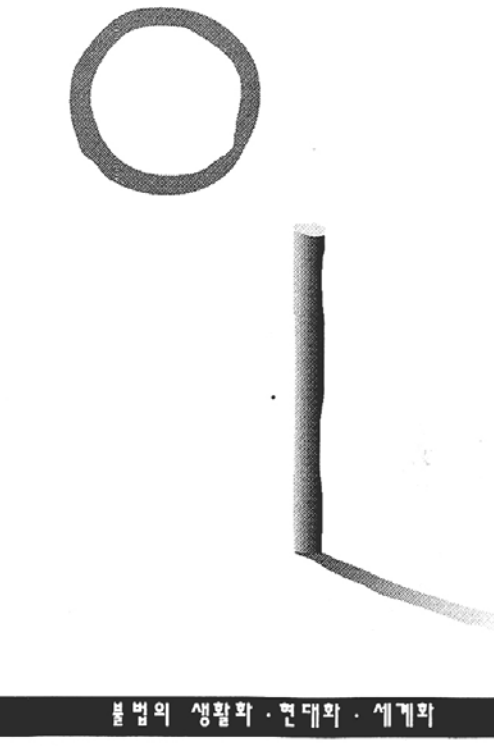
다만 물 없는 사막이요 길 없는 숲에 불과하다.'고 하셨다.

이른바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면 우리는 먼저 설법을 듣고 경전을 보면서 가르침의 뜻을 이해하려 한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 많이 듣고 더욱 많이 보려하는 것은 무지의 허물을 벗고 자신의 속살까지 법우(法雨)에 흠뻑 젖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가르침이 몸에 배어 절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개중에는 다만 지식을 쌓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이도 있다. 경전을 가로로, 세로로 줄줄이 꿰는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한편 자랑으로 삼는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듯이 참다운 지식은 행·실천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지식 쌓기에 의해 증장되는 게 아니다.



"지식에 자만하는 것은 맹인이 등불을 들고 있는 것과 같다. 행이 없는 지식은 무가치하다. 행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의 시작이다."

가령 어떤 이가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보라.'는 가르침을 잘 알고 그 뜻을 남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생명을 아끼고, 남을 돕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고, 남을 사랑하고, 말이 항상 따뜻할 것이다. 그러나 행여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가혹하게 굴고 남을 비방하고 속이는 일을 한다면 그의 지식은 무엇이겠는가?

가령 어떤 이가 '방하착에 대해서 잘 알고 남에게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 사람은 평소의 일상생활 중에도 탐욕을 부리지 않거나 잘 제어할 줄 알며, 화를 내지 않고, 정념에 사로 잡혀 사리를 그르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행여 탐 진 치에 휘둘려서 스스로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끼고 주변도 괴롭게 한다면 그가 쌓아올린 지식이란 무엇이겠는가?

실천이 자연스레 뒤따르지 않는 지식이란 남의 목장에서 놀고 있는 젖소를 세는 일과 같고, 메뉴판을 외고 있으면서 막상 허기를 면치 못하는 것과 같다.

실천없는 지식은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림의 떡으로 만드는 꼴이니 본의 아니게 부처님을 욕되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데에 떨어 뜨리는 격이 된다.

불자로서 어찌 이를 감당하랴.

부처님께서 '파티세나'를 교화하실 때 일자구(一字句)의 지식 밖에 없다해도 몸이 청정하고 말이 청정하고 마음이 청정하다면 그가 곧 아라한이니라 하셨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몸·행·마음을 날날이 알아차리는 게 지혜의 시작이다. 지식이 아무리 많다해도 그것이 곧 지혜는 아니다. 행이 함께 하는 지식만이 지혜인 것이다. 그것이 백지를 아는 것이다.

협 찬 : 김 지 은

불법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